한국전쟁 60주년 맞아 전쟁소재 영화·드라마 봇물

2010년 충무로는 전쟁중!

'포화 속으로' '디 데이' 등 속속 개봉

제 2연평해전 다룬 영화 2편 촬영중

드라마 '전우' 리메이크 돼 6월 방영

2010년 한국 영화계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전쟁영화'다. 올해는 6·25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 영화계뿐 아니라 TV 드라마도 6·25 관련 작품을 준비하는 등 어느 때보다 다양한 전쟁 영화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현재 한창 촬영 중인 '포화 속으로'는 1950년 8월 10일 새벽, 포항에서 수백명의 북한 정예군과 71명의 소년학도병들 사이에 벌어졌던 12시간 동안의 치열했던 전투를 다룬 작품이다.

'내 머리 속의 지우개'를 만든 이재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포화 속으로'는 태원엔터테인머트가 제작하는 대작으로 모두 120억원의 투입됐다.

'포화 속으로'는 특히 화려한 캐스팅이 눈에 띈다. 한류스타 권상우와 빅뱅의 탑이 학도병으로 출연하며 차승원과 김승우가 각각 소대장 역으로 출연한다.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후 공백기를 가졌던 강제규 감독은 또 다시 6·25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징집돼 독일의 나치병사가 된 한국 남자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해 연합군과 싸운다는 이야기를 그린 '디 데이'(가제)는 특히 강제규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작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주인공으로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장동건이 출연하며 일본 배우 기무라 타쿠야도 출연을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나리오 작업은 '화려한 휴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나현 작가가 맡고 있다.

월드컵이 한창이던 지난 2002년 발생했던 '제 2연평해전'을 소재로 두편의 영화도 현재 촬영 준비중이다. 연평해전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남북 간 해상무력충돌로 기록되고 있는 사건으로 영화화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았으나 해상전투신의 어려움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성 등 장애물들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했었다.

800만명을 동원한 흥행작 '친구', 블록버스터 '태풍'의 곽경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아름다운 우리'는 200억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대작으로 특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3D로 촬영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또 다른 영화인 '연평해전'은 '튜브'를 만든 백운학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여섯 명의 병사와 장교가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전쟁영화는 아니지만, 북한군과 남한군이 함께 출연하는 영화도 제작중이다.

열광의 2002년, 오로지 월드컵 중계 방송을 듣고 싶다는 일념 하에 뭉친 DMZ 남북 병사들의 월드컵 관람 작전을 그린 감동드라마 '꿈은 이루어진다'가 화제작.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북한 GP(휴전선 감시초소) 분대원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로 이성재·강성진·정경호 등이 출연했다.

한편 안방극장에서도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속속 제작중이다. 1975년 방영돼 인기를 모았던 '전우'는 다시 리메크돼 6월에 방송될 예정이다. 주인공 소대장역으로는 최수종 주연이 출연한다.

MBC는 머슴 출신의 거친 하사관과 반듯한 육군 사관생도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로드 넘버워'을 방영한다. 드라마 제목은 한국전쟁 당시 서울과 평양을 잇는 대표적 통로인 1번 국도를 의미하며 소지섭·윤계상·김하늘·최민수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디 데이' 장동건

'포화 속으로' 권상우

'포화 속으로' 탑

새 영화 식객:김치전쟁

허영만의 인기만화 '식객'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캐릭터만 빌려왔을 뿐 주 에피소드는 새롭게 씌어졌다.

트럭을 몰고 다니며 식자재를 파는 성찬은 어릴 적 친어머니처럼 자신을 길러준 수향을 보기 위해 음식점 춘향각을 찾는다. 그곳에서 어린시절을 함께 보낸 수향의 딸이자 유명 요리사인 정은을 10년만에 만난 성찬은 장은이 춘양각을 없애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다.

팔도 풍광·김치의 향연

관객들 오감 자극

'스크린 복귀' 이보희 눈길

성찬은 춘양각을 지키기 위해 장은에게 김치 경연대회에서의 대결을 제안한다.

주인공으로 김정은과 진구가 출연하며 이보희가 오랜만에 스크린에 모습을 보인다.

전국을 돌며 식재료를 팔러다니는 성찬, 최고의 재료를 구하기 위해 어디든 달려가는 장은을 스크린데 담기 위해 상주,부안, 영덕 등 팔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카메라에 담았다.

또 100여가지가 넘는 김치 요리와 생선구이 등 다양한 요리가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한다.

김치축제를 열고 있는 광주시가 제작비의 일부분을 지원했다. 〈전체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